

무안군, 최첨단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초당대학교·목포대학교 앞에 2개소 설치 시범 운영 냉·난방기 등 각종 스마트 설비 일체형 모듈에 통합

무안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쾌적한 대중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건너편에 설치해 운영 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더불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초당대학교에 1개소 시범 설치했다.

학생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확인돼 11월 중에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군에서 설치한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난

방기와 실외기, 공조시스템 등 각종 스마트 설비를 일체형 모듈에 통합한 디자인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연감시가 용이하게 한 형태의 버스승강장이다.

설계단계부터 각종 스마트 설비를 버스승강장에 내에 통합 설치해 전선이나 틈새 공간의 노출 없이 마감돼 다른 도시의 스마트 버스승강장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승객과 보행자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고려해 밀폐공간과 개방공간이 함께 있는 버스승강장을 채택했다.

김산 군수는 "더위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휴대폰 와이파이가 구축 및 충전 등 통신편의와 안전을 제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추가 설치해 청년도시 스마트 무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드론봉사단 선진지 견학 성료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 도모

영광군은 지난달 24일 (사)영광드론협회, 드론봉사단 30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익 봉사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광드론봉사단은 고흥드론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안내를 받고, 영광군과 고흥군이 협업하여 '드론축구대회' 개최를 다짐하였으며,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방문으로 국내 항공기술개발과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사업 설명을 경청하였으며, 고흥나로호 전망대를 거쳐 미래 항공기술과정 등을 견학하였다.

선진지 견학 격려를 위해 현장을 찾은 강종만 군수는 "드론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져 선진 농업경영 경쟁력을 높이는 큰 몫을 한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영광군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어업인과 해상풍력 상생하는 논의 자리 만들다

신안군은 지난 5일 호텔 소노캄 여수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장수 신안군어업인연합회장,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이도명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회 위원장, 어업인단체 대표와 발전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 상생협의회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업인연합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각 조업별 어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상생협의회의에서는 해상풍력 특별·기본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어업인 대체사업 및 상생모델 발굴,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 자리를 통해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암 대봉감이요~ 혼저옵서예~"

나흘간 제주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노형점서 판촉행사 완판행렬



영암군과 금정대봉감영농조합법인이 문쳐 제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봉감 판촉행사에 나섰다.

이는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청정 대봉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것으로, 대봉감 홍시, 말랭이, 대봉감 식혜 등 가공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대봉감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스카프를 만드는 등 독특한 자연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제주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과 노형점에서 진행된 이번 판촉행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열띤 호응에 힘입어 대봉감 및 홍시 5kg기준 1,800박스, 말랭이 500g기준 700여 개를 판매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홍시는 판촉행사 진행 중 완판을 기록했다.

영암은 연간 1만 2,000여 톤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봉감 주산지로서 연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가을철 밤

영암=조대호 기자

합평군,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수상

우수설치 분야 참가...최우수상·장려상 받아

합평군이 전남도 주관 '2022년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우수설치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자유롭게 디자인해 제작·설치가 가능한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우수설치'와 '디자인' 2개 분야로 나눠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합평군은 우수설치 분야에 참가해 '장년길 40'과 '장군로 926-12'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합평군은 건물의 용도와 번호판이 조화롭게



제작돼 2차 도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진 민원봉사실장은 "앞으로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합평=김광춘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